

탄 원 서

제목: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들의 구제안 마련

탄원주체: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

탄원 취지

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2005년 개정된 국적법은, 원정출산으로 인한 부유층 자녀들의 복수국적을 차단하였으나, 이 관련법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들이 입는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

어느 법안이 개정되면 그에 대해 대상자인 재외동포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인지시키는 것 또한 정부의 의무인데, 공관의 홍보부족으로 수 많은 동포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선의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. 또한 부모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한국인인 다문화가족의 자녀들도 관련법으로 인해 미 정계나 공직진출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이에 미주 현직 한인회장들은 더 이상 한인 2 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약 없이 사랑하는 조국과 거주국가를 위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봉사 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탄원드립니다.

탄원 내용

하나.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일정의 유예기간을 주어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어 구제하는 방안마련.

둘. 현재 한국의 헌법 재판소에 계류중인 2016 헌마 889 (청구인: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가진 Christopher Shawn Mulvey Jr.)의 제 5 차 헌법소원에 대한 신속하고 긍정적인 판결을 촉구

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은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, 그리고 소수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. 법이 선량한 젊은이들의 장래를 발목잡아 피해를 주고있다면, 그들의 인권은 국가가 지켜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.

부디 해외 우수인재들이 자신의 조국, 거주국가를 위해 꿈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.

미국 현직 한인회장단

2018년 01월 05일

